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6일(화)은 현충일이고, 23일(금)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 오늘(4일)은 삼위일체주일이며, 동시에 환경주일입니다.
- 꾸러기학교에 매년 갖는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가
5일(월)-6일(화) 1박2일로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2023년 대안교육포럼(교장단연수)이
9일(금)-10일(토) 충북 음성 좋은열매 기독교에서 모입니다.
-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성흠 청년 (생일 감사)
장미숙 권사 (생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이안 학생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3 호

2023년 6월 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떼제에서 전해드립니다

찢힌 아카시아 향과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이곳은 프랑스의 작은(?) 공동체 마을, 떼제입니다. 저는 지금 일종의 휴식공간인 오약(OYAK)이란 카페에서 바닥에 앉아 글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떼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요. 로제 수사가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지향했었고, 1940년 창립 이래로 꾸준히 그 뜻을 이어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찾아와 공동생활과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특히 다양한 배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방문객의 하루 일정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아침기도와 아침식사, 10시부터 성경공부와 소그룹 모임, 점심기도와 점심식사, 오후 소그룹 모임 및 워크샵, 오후 5시 넘어서 다과 시간, 저녁식사와 저녁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일정속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없었지만)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실 것 하나씩 들고 대화하는 모습을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말로만 듣던 곳에 실제로 와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연결될 기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방문객들이 곧 봉사자가 되어 섬김을 주고 받고, 각 다른 인종과 문화가 훨씬 작아진 장벽을 넘나들며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당번,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같은 자발적으로 다른 방문객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장기 봉사자로 남는 경우도 많았고 그 중에는 귀에 피어싱을 열개나 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던 끝에 수사까지 된 분도 계셨지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젊음이 유발할 수 있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밤늦게까지 술 대신 콜라를 **선교와 섬김**

마시고,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은, 제가 흔히 알던 현대 밤문화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에선 문화공간이라면 빠질 수 없는 와이파이도 시원찮고, 밤 10시반이면 문 닫는 매점도 시대착오적일 수 있지만, 서투른 영어 속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오고 가고 우정을 쌓고 연합할 수 있음을 떼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는 멋쟁이 학생들이 서로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며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떼제에서도 이런저런 사정들은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 방문객을 받을 수 없어 비스켓과 잼을 새로이 판매했고, 테러 위험 때문에 실탄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돌아다닙니다. 함께 실아가는 공동체인 이상 인간적인 문제들도 있고, 노환을 겪는 수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딘가의 독일 학교에서는 큰 버스로 학생들과 교사들을 실어나를 만큼, 떼제에서 무언가를 배우길 바라고 보냅니다. 무엇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일까요?

바로 대연합,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고 연결되는 우리 자신 그 모두일 것입니다. 찢어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에서 서로 다르지만 연합하는 것. 낮은 서로를 배워가며 신뢰하는 것.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나? 무엇을 배우게 되려나? 끝없는 기대에 차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일정을 소화하며 있다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있는 저녁10시가 되었네요. 저희의 몸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항상 사랑방 식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돌아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11 : 6
43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복회기도

요한복음 3 : 1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79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호세아서 10 : 1-12
478

설교자
새싹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일구 정성미/ 봉헌위원 : 이재신/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 유다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초기 전성기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 정의를 외쳤다는 것은 정작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정의.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생태 정의입니다. 정의는 올바르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삶은 수많은 환경파괴를 낳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의를 심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연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대를 해야 합니다. 기후재앙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녹색교회로, 신도들은 녹색 예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역의 시작입니다. 생태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의 공효이 넘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영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딸기 많이 따고 있습니다. 작년에 11개를 심어서 올해 처음 나오기 시작한 딸기가 두 손에 올라올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는 스테인레스 볼에 한 가득 담길 정도로 많이 열렸습니다. 작물들 잡초도 뽑고 이제 딸기를 따려고 하는데 생각 너무 많이 열려서 따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많이 딴 딸기는 이번에 어린이학교 학생들과 나눠먹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꾸러기들도 많이 뿌듯해 했습니다.

다음 주 아빠와 함께 캠프 뒤에 바로 6월 생일잔치가 있어서 미리 생일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거의 모든 애들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카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냐에 따라 그리는 그림, 종이에 색깔과 모양, 형태 등 매우 달라집니다. 상대를 생각해서 만드는 작품에 차별성도 있고, 개성도 넘쳐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만들어서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1년을 보내고 어떻게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캠프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19도 끝나서 예전과 같이 아래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를 합니다. 아이들과 아빠들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아주 즐거운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중 5명이 약을 가져와서 끝날 때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준비물을 잘 챙겨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두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과 함께 어린이에 또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건 이채원 2학년 친구의 편입학입니다. 얼굴이 뽀얗고 실내에서만 논듯한 친구인데 어린이학교에서의 생활이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사뭇 궁금해 집니다. 식사시간, 수업시간, 쉬는시간 등 모든게 달라서 어리둥절 하지만 같은반 하늘이가 손을 잡고 다니며 한시의 빈틈도 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4,5,6 학년이 과학시간의 확장으로 의정부 천문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관계자들께서 하신말씀 중 하나를 적자면 (이 학교 학생들은 표정부터가 달라요. 예의도 바르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비교도 안되게요.)라고 하시며 칭찬과 함께 학교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가 없네요. 우리학교 참 좋습니다. ~~ 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5월을 기꺼이 보내주고, 6월을 기꺼이 맞이하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6월의 첫날, 공동 심화 시간에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우주 항공에 대한 역사와 의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6학년은 6월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시험이었지만,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4, 5학년의 해외문화체험학습이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장성아 >

지나고 가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멋쟁이학생들과 해외문화체험(미국)을 하고 있는데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출발부터 이상한 여행출국 날짜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Mrs. Kim과 대화 하면서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1주일 전에 XL(예수의 리더)을 정리하면서 1/8정도 사무실을 줄여 이사를 하였고 모든 집기들을 집으로 가져와 손님을 맞이할 수 없었는데, 4일 시간이 생겼고 그래서 맞이할 시간과 마음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입국 할 때도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들뜬 마음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물게 되는 집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본래 계획은 부모님을 모실 계획으로 외곽지역(시골)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집으로 구매하셨는데 부모님께서 건강해 지셔서 방의 여유가 생긴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나이든 남자 교사가 와서 당황해 하셨는데 좀 지내보니 장로님과 일도, 운동도, 여행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남편인 장로님께 힘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계획 외로 미국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따님의 학교에서 영어로 수학도 배워보고,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가족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장로님 부모님의 초대를 받아 식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만나보니 아주 좋으신 어른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화목하고 주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주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어떻게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이 모든 것이 기도해주시는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 못헤드리는 이야기들은 돌아가서 조금씩 풀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191장, 325장
성 경 : 골로새서 1:9-12
말 씬 :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엘레노 현상과 슈퍼태풍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심각성을 실감하며 실제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한마당 잔치>
8/17-19까지 있을 [한공협 한마당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동체의 형편을 살펴주시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멋쟁이학교 4, 5학년을 포함하여 외부로 나가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2) 허철영 집사님 형님의 건강 회복과 믿음 생활을 위하여.

<생활공동체 소식 >

비가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은 공동체의 정경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공동체 마당에서 바라보는 하늘 풍경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집니다. 밭에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공동식구들의 이런저런 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의 유익에 대해 세삼 느끼고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한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지체들을 위해 서로 서로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